

1. 다니엘서 9 장을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가 가지는 특징을 알 수 있지요. 기록하기를,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그 표현이 독특하지요. “말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몸짓이나 찬양이 아닌, 음성으로, 또, 언어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2. 조금 만 더 자세히 쳐다보면, 먼저 앞세운 말이 **“말했다”**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말이 기도라고 밝히지요. 입을 열어 말한 그것이 바로 “기도(נְדָוָה)”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그 말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그 다음을 보면,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부터가 말한 내용입니다. 입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자복(נִתְּנָה)”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4. 여러분은 여기서, “자복한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실토한다는 뜻보다는, “감사한다”, 또는 “감사로 고백하다”는 뜻이 더 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고백” 쪽 되는 말이지요.
5. 또 이어서 내놓는 말이 “간구(לְפָנָיו)”입니다. 여기서도 “간구”란 애걸복걸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드러내 놓다”, 또는 “펼쳐 놓다”라는 뜻이 강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가 무슨 말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근접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6.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거나 청구하면서 애걸복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감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놓고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으로 자기 기도의 내용을 삼은 것입니다.
7. 그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의 모습이 9 장 3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가히 사랑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8.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기도의 형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자세도 이러해야 함을 깨닫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기도 중, 감사했느냐, 또는 고백했느냐? 나를 펼쳐 놓았느냐?를 보아야 하지요.
9. “기도한다”는 말 뒤에 “자복한다” 또는 “간구한다”는 말이 나란히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가 곧 자복이자 간구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10.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빌었다는 것도 아니고, 포로귀환을 염원했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과 입을 열어 기도하는 중에, 1)자복과 2)간구, 즉 감사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배워야 했던 이유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유대교가 하루에 3 번 기도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다니엘의 이 기도가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12.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기도할 때, 재를 뒤집어 쏜다거나, 혹은 금식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도해야 할 지 몰랐지요. 특히나 기도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 놓는 일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지도 몰랐지요.

13. 먼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닮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14.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선,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자격이 필요하지요. 무엇보다도 기도란,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버지란 외침은, 자녀 만이 할 수 있는 외침이지요.

15.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예레미야가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유수의 그 포로생활이 70 년 만에 끝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일의 당사자라는 자각이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이란 뜻입니다.

16. 그래서 만일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기도하려 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됨이라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 자녀된 자로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디를 지나고 있는 지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고백입니다.

18. 다시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9 장 4 절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곧 다니엘은, 줄곧 자기와 자기 민족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소위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복”하는 모습의 실상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19. 5 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또 6 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20. 그래서 어찌라는 말입니까? 이같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떨어져서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절,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21.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고관대작이 되었습니다. 제국을 경영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감사는, 겉모습은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그는 원래 포로라는데서 출발합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 가운데 그가 붙잡혀 있다는 소리지요.
22.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17 절부터는 그 기세가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소위 “간구”가 시작되지요.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19 절,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까놓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 앞에서 말했습니다. 기도한 것이지요. 그걸 요약하자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세요.”입니다. 소위 자백과 간구이지요. 감사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24.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니엘의 후예라는 우리가, 기도 만큼은 다니엘처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백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간구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간구마저도 매우 미신적이지요.
25. 9 장 16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 번역에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뒤에 나오는 기도들이, 다 다니엘이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구절에는 “구한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26. 그러면서 펼쳐놓는 그의 간구는, 첫째, 주의 분노를 주의 성읍에서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공의하심에 걸맞다는 소리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17 절에, 이 기도(테필라), 고백을 들어달라는 간청입니다. 셋째는 주의 얼굴 빛을 예루살렘에 비취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실하다는 것이지요.
27. 언뜻 보면, 자기들의 포로생활을 끝내달라는 간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기도 중에 구한다는 “용서”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8. 19 절을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구하는 “용서”란 정해진 형량을 줄여달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대로 실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을 얻으시라는 소립니다.
29. 그래서 용서란, 70 년의 기한을 채우시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70 년 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내리신 형벌대로,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남의 나라에서 유리 방황하게 되었음을 내어 놓고, 그 형량을 70 년으로 정하셨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이 기한을 채워달라는 소립니다.

30. 그럼으로써, 그런 형벌을 채우는 가운데 있는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징벌하신, 하나님의 세상 경영 가운데 속한 자임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그 심판의 대상자이며, 또한 그 언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31. 만약 다니엘이 그 기간을 깎아 달라고 간청했다면, 그건 기복입니다. 우리도 만약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정을 바꾸어 보겠다는 태도지요. 멸망의 가증한 우리 인간이, 감히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입니다.
32.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복이자 간구입니다. 원래 재판에서 선고하신 대로 자기들이 모두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까발림입니다. 동시에, 그런 고난과 환난을 받게 하시되, 한 오리도 남김없이 다 갚도록, 70 년을 채워달라는 간구이지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33.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야베스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되게 해 달라고, 더 잘되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치 기도하는 다니엘이 된 것처럼 우쭐대는 것이, 지금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린다면에서도, 그걸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만 있습니다.
34. 저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이 금식은 하면서도, 재 위에는 앉지 않고,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